

2018년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로드맵

2018. 4.



❑ ❑ 목 차 ❑ ❑

I. 수립배경	1
II. 수산물 수출 현황 및 문제점	2
III. '18년도 수산물 수출 여건 및 전망 ...	10
IV. 정책목표 및 과제별 추진계획	12
1.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	13
2. 수산물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19
3. 수출업계 애로 해소 및 역량 강화	26
V. 향후 추진일정	29

붙임 : 국가별·품목별 수출확대 전략

I. 수립배경

◇ 수산물 수출 호조, 해외시장 확대 여건 개선

□ '17년 수산물 수출은 사드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김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며 전년대비 9.5% 증가한 23.3억불 수출(역대 2위 실적)

* 수출액(억불): ('12) 23.6 → ('13) 21.5 → ('14) 20.7 → ('15) 19.2 → ('16) 21.3 → ('17) 23.3

** 국가 전체수출 : 5,737억불(전년 대비 15.8% ↑), 농식품 : 68.3억불(5.6% ↑)

□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 경제 회복세**, FTA 확산***, 한·중 관계 정상화 등에 따라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기대

*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FAO, kg): ('60년대) 9.9 → ('14~'16 평균) 20.3 → ('25°) 21.8

** 세계경제성장률(IMF) : ('12~'16 평균) 3.3% ('17) 3.7% ('18°) 3.9%

*** 한·중 FTA 발효('15.12)에 따라, '35년까지 수산물 관세 100% 철폐 예정

◇ 달러화·엔화 약세, 보호무역 기조 확산 등에 대한 대비 요구

□ '18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며, 환율은 달러화와 엔화 약보합세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2018년 경제 전망 참조

○ 미국은 고용호조, 세제개편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며, 자원가격 회복 등에 따른 신흥국이 세계경제 성장 견인

□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식품 안전성 정책 강화(美, 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 등)에 대한 경계 요구

○ 다만, 중국은 양국의 정상화 선언에 따라 관계 개선 전망

☞ 불확실한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18년 수산분야 수출 27억불 달성을 위해,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로드맵' 수립 및 총력 지원

II. 수산물 수출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현황

① [2017년 성과] 수산물 수출 23.3억불로 역대 2위 실적 달성

□ '17년 수산물 수출액은 23.3억불로 전년(21.3억불) 대비 9.5% 증가하며 지난 '12년(23.6억불) 이후 역대 2번째 실적 달성

○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김 수출이 급증하면서, 국내 생산되는 단일 농수산물 중 사상 최초로 5억불 돌파하며 수출을 견인

* 김 수출실적(백만불): ('08) 75 → ('10) 105 → ('12) 231 → ('15) 305 → ('17) 513

○ 중국·홍콩을 제외한 10대 국가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출 증가에 힘입어 국가 전체 수출에서 수산물의 수출비중도 증가세*

* 수산물 수출 비중(%): ('08) 0.34 → ('12) 0.43 → ('14) 0.36 → ('15) 0.37 → ('17) 0.41



② [수출국가] 수출 대상국 다변화 · 상위 수출국 의존도 개선

□ 전 세계 144개국에 수출하며 수출상대국은 지속 다변화되고 있으며, 상위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도 다소 개선 추세

* 수출상대국 추이(개국): ('00) 94 → ('05) 106 → ('10) 113 → ('16) 138 → ('17) 144

** 상위 5개국 수출비중(%): ('00) 89 → ('05) 88 → ('10) 80 → ('16) 77 → ('17) 76

- 제1위 수출상대국인 일본의 수출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 아세안, EU 등에 대한 수출 비중은 증가 추세

* 수출비중('11/'17): (일본) 43%/33% (미국) 8%/12% (아세안) 12%/18% (EU) 4%/9%

< 수출 상위 5대 국가 수출액 추이('14~'17) >

(단위 : 백만불)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수출 비중 증감폭
합 계	2,067(100.0)	1,924(100.0)	2,128(100.0)	2,329(100.0)	-
일 본	765(37.0)	665(34.5)	737(34.6)	772(33.1)	△1.5%p
중 국	309(15.0)	313(16.3)	377(17.7)	373(16.0)	△1.7%p
미 국	217(10.5)	232(12.0)	241(11.3)	280(12.0)	0.7%p
아세안	273(13.2)	300(15.6)	348(16.3)	408(17.5)	1.2%p
E U	128(6.2)	126(6.6)	157(7.4)	211(9.1)	1.6%p

③ [수출품목] 주요 수출 품목 의존도 심화

- 수출되는 약 120개* 품목 중,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의 약 70% 차지

* 수출 품목(개): ('11) 113 → ('14) 122 → ('15) 118 → ('16) 117 → ('17) 123

** ('17기준) 참치, 김, 오징어, 넙치, 이빨고기, 굴, 게, 게살, 전복, 붕장어

-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품목의 집중현상 심화

* 10대 품목 비중(%): ('13) 64.2 → ('14) 64.0 → ('15) 65.8 → ('16) 67.5 → ('17) 69.5

(단위 : 백만불)

순위	'15년		'16년		'17년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총 수출	1,924(100.0)	총 수출	2,128(100.0)	총 수출	2,329(100.0)
	10대 품목	1,266(65.8)	10대 품목	1,436(67.5)	10대 품목	1,619(69.5)
1	참치	490(25.4)	참치	576(27.1)	참치	625(26.9)
2	김	305(15.8)	김	353(16.6)	김	513(22.0)
3	굴	96(5.0)	오징어	112(5.3)	오징어	78(3.3)
4	오징어	95(5.0)	전복	66(3.1)	넙치	65(2.8)
5	넙치	58(3.0)	굴	62(2.9)	이빨고기	60(2.6)
6	게살	49(2.5)	넙치	61(2.9)	굴	59(2.6)
7	붕장어	47(2.4)	붕장어	54(2.5)	게	59(2.6)
8	삼치	45(2.3)	게살	53(2.5)	게살	54(2.3)
9	이빨고기	43(2.2)	삼치	50(2.4)	전복	52(2.2)
10	전복	39(2.0)	이빨고기	48(2.3)	붕장어	52(2.2)

④ [수출유형] 가공원료용 냉동 원물 중심이나, 가공품 점진적 증가세

- 수산물은 원물(활어, 신선냉장, 냉동) 63.9%, 가공품 36.1% 형태로 수출되며(최근3년 평균),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는 냉동 원물은 약 51%를 차지

- 다만, 가공수산물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원물·단순가공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

* 가공수산물 수출 비중(%): ('07) 25.7 → ('13) 30.4 → ('15) 34.8 → ('17) 38.8

- (활어) 넙치(64%), 붕장어(32%) 등을 일본(79%), 미국(18%) 등으로 수출
- (신선냉장) 전복(24%), 게(17%) 등을 일본(75%), 홍콩(7%) 등으로 수출
- (냉동) 참치(49%), 오징어(9%) 등을 일본(28%), 중국(19%) 등으로 수출
- (가공품) 김(45%), 게살(8%) 등을 일본(32%), 미국(19%) 등으로 수출

(단위 : 백만불)

구 분	'15년(%)	'16년(%)	'17년(%)	평균
합 계	1,924(100.0)	2,128(100.0)	2,329(100.0)	2,127(100.0)
▪ 원물 합계	1,255(65.2)	1,401(65.8)	1,425(61.2)	1,360(63.9)
- 활어	62(3.2)	69(3.3)	70(3.0)	67(3.1)
- 신선냉장	184(9.6)	239(11.2)	227(9.7)	217(10.2)
- 냉 동	1,009(52.4)	1,092(51.3)	1,128(48.4)	1,077(50.6)
▪ 가공	669(34.8)	727(34.2)	905(38.8)	767(36.1)

⑤ [수출물류] 주로 부산항을 통해 대부분 해운으로 수출

- 대부분 해운(물량 99.6%, 금액 96.2%)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활어패류(넙치, 전복 등)의 일부 물량이 항공(물량 0.4%, 금액 3.8%)을 통해 수출

- (해운) 주로 부산항(56%)을 통해 수출되며, 울산항(6%), 광양항(3%), 인천항(1%), 불개항장(32%) 등도 활용(물량 기준)

* 해상운송 시 컨테이너로 수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활어차 직접 수송, 선박 내 수조를 이용한 수송, 벌크 수송(참치 등) 등의 형태도 존재

- (항공) 대부분 인천공항(92%)을 통해 수출되며, 일부 물량이 김해공항(7%), 제주공항(0.2%)을 통해 수출

⑥ [수출 업계] 수출 업체 증가세, 백만불 미만 초보업체가 대다수

□ (총괄) 수출지원 사업에 힘입어* 수출업체가 증가세('13년 2,116개 → '17년 2,198개)에 있으나, 대부분 영세(중소기업, 수출 100만불 미만)

* 해외시장개척사업 수혜업체(개) : ('14) 223 → ('15) 297 → ('16) 514 → ('17) 492

□ (수출규모별) 수출초보기업^{수출 100만\$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1,840개, 83.7%)하며,

2%의 수출핵심기업^{수출 1,000만\$ 이상}이 전체 수출의 약 50%를 수출

(단위 : 개소, 백만\$)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수출액
						수출액
합 계	2,116 (100.0%)	2,060 (100.0%)	2,155 (100.0%)	2,249 (100.0%)	2,198 (100.0%)	2,329 (100.0%)
수출초보기업 (100만\$ 미만)	1,762 (83.3%)	1,728 (83.9%)	1,837 (85.2%)	1,887 (83.9%)	1,840 (83.7%)	244 (10.5%)
수출유망기업 (100 ~ 1,000만\$)	317 (15.0%)	295 (14.3%)	281 (13.0%)	325 (14.5%)	313 (14.2%)	957 (41.1%)
수출핵심기업 (1,000만\$ 이상)	37 (1.7%)	37 (1.8%)	37 (1.7%)	37 (1.6%)	45 (2.0%)	1,128 (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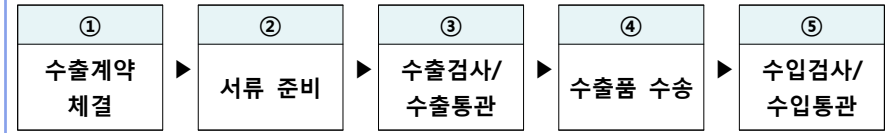
□ (기업분류별)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1,933개, 87.9%)이며, 중소기업 수출이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75.9% 차지

(단위 : 개소, 백만\$)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수출액
						수출액
합 계	2,116 (100.0%)	2,060 (100.0%)	2,155 (100.0%)	2,249 (100.0%)	2,198 (100.0%)	2,329 (100.0%)
대기업	20 (0.9%)	20 (1.0%)	28 (1.3%)	32 (1.4%)	26 (1.2%)	33 (1.4%)
중견기업	46 (2.2%)	52 (2.5%)	53 (2.5%)	63 (2.8%)	59 (2.7%)	512 (22.0%)
중소기업	2,025 (95.7%)	1,970 (95.6%)	2,056 (95.4%)	2,068 (92.0%)	1,933 (87.9%)	1,767 (75.9%)
기타	25 (1.2%)	18 (0.9%)	18 (0.8%)	86 (3.8%)	180 (8.2%)	17 (0.7%)

* 수산물 수출실적이 1불이라도 존재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통계이며, 실제로 수산전문기업 중 대기업은 없음

【참 고】 수산물 수출 프로세스



① 수출계약 체결

- 수출 품목과 수출 목표시장을 설정하여 시장 조사, 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거래선(바이어)을 발굴
- 거래선(바이어) 신용 조회 등을 비롯하여 대금결제, 물품운송, 클레임 등에 관한 상호 합의에 의해 수출계약 체결

② 서류 준비

-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별도로 원산지 증명서(C/O) 준비

* 특혜 관세, 수입 요건 및 세율을 결정하는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서류 작성 필요

- 수산물의 경우 국가별로 사전 등록·서류 등이 필요

* 미국 : FDA 사전 등록,
중국·베트남 등 위생약정 국가 : 가공공장 등록 등

- 위생약정 체결국, 위생증명서 요청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위생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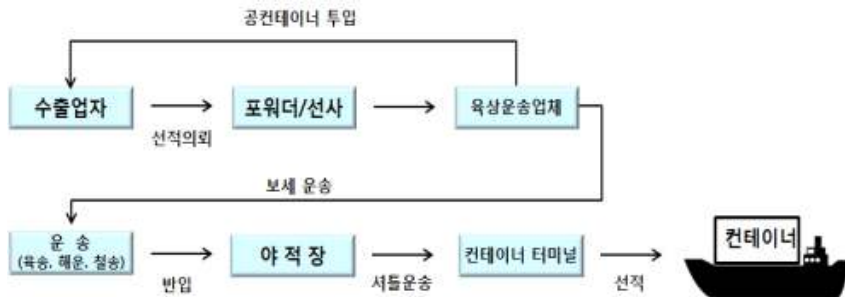
* 위생약정 체결 국가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위생증명서 요구 국가 : 미국, 일본, EU

** 그 외에도, 상대국가 바이어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위생·분석증명서 발급

③ 수출통관

- (세관 신고) 수출신고서,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등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수출신고필증 발부**
- (수출 통관)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수출물품을 선적하면 **선하증권(B/L)을 발급**
 - * 원양수산물 :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수출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수출 신고수리가 취소되고 과태료 부과

④ 수출물류 절차(컨테이너 수출)



⑤ 수입검사/수입통관

- CIQ 검사 진행 후 증명서 발행
-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 시에 납부했던 관세 등을 소요량 증명서 등에 의거하여 **환급 가능**

2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문제점

① [어업 생산량] 연근해·원양 생산 감소로, 수산물 생산량 정체

- 수산식품산업 성장으로 수산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원양·연근해 생산 감소세와 해조류에 편중된 양식생산 체계로 안정적 원료 확보에 애로



- 어업규제, 이상 수온, 자원량 감소 등으로 원양(47만톤)·연근해(93만톤)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
 - * (원 양) ① 참치 34만톤(69.5%) ② 오징어 5만톤(9.8%) ③ 명태 2만톤(4.8%)
 - * (연근해) ① 어류 67만톤(71.8%) ② 연체동물 12만톤(12.5%) ③ 갑각류 8만톤(8.2%)
- 다만, 양식어업의 생산량(230만톤)과 생산액(2.9조원)은 증가 추세이며, 주요 수출품목인 김(52만톤), 굴(32만톤), 넙치(4만톤)의 생산량은 증가
 - * (양 식) ① 해조류 176만톤(76.0%) ② 패류 43만톤(18.5%) ③ 어류 9만톤(3.7%)

② [영세한 수출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수출 경쟁력 약화

- 수산물 수출업체(2,198개)의 대부분이 수출초보기업(1,840개, 83.7%) 또는 중소기업(1,933개, 87.9%)으로 영세하여 수출역량·경험 부족
- 수출초보기업군은 수출역량 미흡으로 평균 수출액이 13.3만불에 불과
 - * 수출비중 : (수출초보기업) 10.5% (수출유망기업) 41.1% (수출핵심기업) 48.4%
 - * 평균 수출액 : (초보기업) 13.3만\$ (유망기업) 305.8만\$ (핵심기업) 2,506.7만\$
- 수출초보기업군 중에서도 연간 10만불 이하 수출업체 수가 1,242개로 높은 비중 차지(수출초보기업군의 67.5% / 전체 수출업체의 56.5%)

③ [저부가가치] 냉동 원물 위주 수출에 따라 부가가치가 낮음

- 수산가공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주로 냉동 원물 위주로 수출됨에 따라 부가가치가 낮고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
 - * '17년 유형별 수출단가(\$/kg) : (냉동) 3.3 (가공) 5.5 (신선냉장) 8.6 (활어) 14.6
 - 국내 일부 수산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곤란하고 국제 경쟁력 저하
 - * 수산가공업체 매출 현황('16) : 10억 ↓(68.8%), 10-50억(21.6%), 50-300억(8.2%), 300억 ↑(1.5%)
 - 수산물 수출의 약 50%가 부가가치가 낮은 냉동 원물이며,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개도국의 양식·가공산업 원료로 주로 사용
 - * 냉동원물 수출 비중(%) : ('14) 56.4 → ('15) 52.4 → ('16) 51.3 → ('17) 48.4

④ [편중된 수출시장] 특정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수출국은 지속 다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일 수출비중이 높으며 상위 3개국에 전체 수출의 약 61%를 차지하여 시장 집중도가 높음
 - * 일본(7.7억불, 33.1%), 중국(3.7억불, 16.0%), 미국(2.8억불, 12.0%)
 - * 상위 5개국 수출비중('17기준, %) : (국가전체) 56.5 (농식품) 56.7 (수산물) 76.0
 - 비관세장벽 강화, 환율(엔화·달러화) 등락 등 주력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좌우되는 등 대외 리스크 상승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수출(백만불)	2,151	2,067	1,924	2,128	2,329
대일 수출(백만불)	815	765	665	737	772
일본 수출비중(%)	37.9	37.0	34.5	34.6	33.1
환율(원/100엔)	1,123	996	935	1,068	1,009

- 특히,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한중일 외교갈등(가능성)에 따른 비관세장벽 강화 시 수산물 수출에 심각한 차질 초래 우려

Ⅲ. '18년도 수산물 수출 여건 및 전망

① [세계 경기]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 견인, 불확실성 지속

- 신흥국 중심의 경기 회복, 선진국의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IMF)
 - 중국은 정부의 소비중심 성장구조 전환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 전망, 브라질, 아세안, 러시아 등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안정, 수출증가, 투자증가의 영향으로 회복 또는 성장 기대
 - 미국은 내수 중심으로 전년도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유로지역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제한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 정치적 이슈, 임금 상승 등의 하방 리스크에 주의 요구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금융시장 변동성, 브렉시트 과도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글로벌 교역 위축('17년보다 소폭 둔화) 우려
 -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식품안전 관련 규제 강화* 추세
 -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16.下 단계별 시행), 중국 신규 식품안전법 시행('15)
 -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의 양적완화 축소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견되고 있어,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본이 유출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

② [해외 시장] 수요 및 가격 지속 상승 전망

-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수산물 수요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공용 원자재 수요도 동반 증가 예상
 - 수산물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수산물 가격도 증가 추세
 - * 수산물 가격지수(FAO) : ('10) 137 → ('12) 144 → ('15) 142 → ('16) 146 → ('17) 152

3 [수산물 생산] 전년대 유사한 수준의 생산 전망

□ '18년 국내 수산물 생산은 전년 수준인 373만톤 규모로 전망되며, '22년까지 수산물 생산 소폭 증가 예상

(단위 : 만톤)

구분	'16년	'17년	'18년	'22년
합계	3,257	3,678	3,731	3,984
연근해	930	932	963	914
양식	1,838	2,209	2,210	2,470
원양	454	501	520	554
내수면	35	36	38	46

* 출처 : KMI 2018년 해양수산전망대회 등

○ 주요 양식품목 별로는 시설량 증가 등에 힘입어 김, 전복, 굴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넙치는 생산 감소 전망

* KMI 2018년 해양수산전망대회 : (김) 시설량 증가, (전복) 시설량 증가, (굴) 잔여시설량 많고, 비만도 양호, (넙치) 출하가능물량 감소

【참고】 수산물 수출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수산자원과 청정한 해역 · 우수한 어획·양식기술 · 일본, 중국 등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 정책적 의지 및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된 생산환경 · 수출 업체의 영세성 · 특정 국가 편중 · 부가가치가 낮은 수출구조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 · 미국·신흥국 경기 회복 전망 · 한류 등 한국산 수산물 인지도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보호무역주의 확산, 비관세장벽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안정성 심화

- ☞ (추진과제) ① 고부가가치화 등 수출 경쟁력 강화
 ② 시장·품목 다변화
 ③ 수출 불확실성 대응 업계 애로 해소 추진

IV. 정책목표 및 과제별 추진계획

정책목표

수산물 수출 증대를 통해 수산업에 혁신 성장동력 창출
 = '18년도 수산분야 수출액 27억불(전년 25억불 대비 8% ↑) 달성 =

기본방향

- ◇ (시장) 태국·말련 등 아세안 新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
- ◇ (품목) 고부가가치 수산물·수산가공식품 수출 증대
- ◇ (지원) 수산식품기업 역량 강화, 물류망 구축 등 수출기반 조성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글로벌 수산 식품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식품 생산 인프라 구축 · 차세대 스타품목 발굴
	수산물 특화 물류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산물 물류인프라 확대 · 해외시장 수출 물류·유통망 확충
2. 수산물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시장 개척 교두보 마련 ·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시장 개척 지원
	수출통합브랜드 글로벌 런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ISH 브랜드 운영 · K·FISH 브랜드 및 상품의 해외 홍보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중심의 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 온·오프라인, 미디어 활용 마케팅 확대
3. 수출업계 애로 해소 및 역량 강화	비관세장벽 효과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마련 · 원활한 수산물 수출 통관 지원
	수출 업계 성장사다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수직·수평 계열화 유도 · 수출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

1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

가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안정적 수출물량 창출

1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① 친환경·첨단 양식기법 등을 활용한 생산체계 구축

- 사육수 정화 시설을 통한 질병감염 최소화로 폐사율 저감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해 IT 기반의 **친환경 양식**(바이오플라, 순환여과)으로 전환

【추진일정】 ① 현장 설명회(3월) → ② '18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4월) → ③ 친환경 양식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8월) → ④ 친환경 양식장 준공(12월)

- 종자생산 기술개발 등 **대량 생산시** 수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참다랑어, 뱀장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양식기반 강화** 추진

② 생산 증대 및 활용 기술 연구 확대

-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조류의 양식 면허를 **5% 이내에서 확대** 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해조류 가공기술 개발** 지원

【추진일정】 ① '18-'1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시달(1월) → ② 신규면허 확대 사전협의(3월) → ③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3~4월, 시군구) 및 승인(6월)

③ 종자산업 육성으로 양식산업 기반 내실화

- 골든시드 프로젝트(GSP)를 통해 빨리 자라고, 질병내성 및 고수온 등 환경에 강한 수산 **종자* 개발**('13~'21, 748억원) 및 **수출** 추진**

* 3개 품종(넙치, 전복, 바리류)별 양식 환경에 맞는 맞춤형 종자 개발·생산 및 환경변화에 강한 김 종자(국내) 보급

** 수산종자 수출을 위한 해외양식기지 2개소 구축('18, 베트남, 인도네시아)

-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전문인력 육성,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산종자산업육성 기본 계획(5년) 수립**('18.上)
- 해조류 품종의 안정적 형질 유지 및 신품종 보급을 위한 **해조류 신품종 보급센터 운영**('18.上)

2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①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 다소비 품종, 부적합이력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수산물을 중심으로 중금속·항생물질·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확대** 추진

* 조사계획(건) : ('15) 11,170 → ('16) 11,900 → ('17) 12,500 → ('18) 13,000

- 넙치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되는 **위해요소**(사료·항생제·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 등록개소 : (~'15) 78개소 → ('16) 113개소 → ('17) 154개소 → ('20) 240개소

② 수출 수산물의 품질관리 강화

- (김) 수출되는 조미김의 품질향상, 중국내 세균수 기준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지원

* 마른김 업체에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보급 및 이물질 선별기 등 가공설비 확충

【추진일정】 ① 수요조사 및 모집공고(3월) → ② 업체선정(4월) → ③ 사업추진(4~6월) → ④ 설치기기 현장확인 등 검수(7~9월)

- (굴)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확충**(~'22, 36개소)으로 **육상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추진

③ 국제인증 취득 지원

- 프리미엄 및 신규시장 진입, 해외바이어 및 소비자의 제품 신뢰 제고를 위해 ASC·MSC·할랄·코셔 등 **국제인증 취득 지원**('18. 6억원)

【추진일정】 ① 인증취득 모집 공고(3월) → ② 모집홍보(4월) → ③ 인증취득(12월)

나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수출구조 전환을 위해 수산식품산업 육성

① 수산식품 생산 인프라 구축

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및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확대

- 국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업체를 집적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확대('18년 총 7개소 진행)
 - * 완공 누계(개소) : (~'15) 7 → ('16) 9(포항, 고창) → ('17) 11(울진, 괴산) → ('22) 20
- 수산가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주도형 미래 성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구축 추진
 - *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추진계획('17.12, 장관 방침)
- 개별업체·기초지자체 단위로 추진되던 소규모 수산물 가공 사업을 연구개발·수출 기능을 결합한 종합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개편·전환

【추진일정】 ① 클러스터 전담권·부산권 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18) → ② 설계용역('18~'19) → ③ 부지조성 및 건축(~'22년)

②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영세한 수산가공업체의 가공시설 건립·현대화(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수협의 처리저장시설 건립 지원 등을 통한 생산여건 개선

< '18년 수산물 가공 시설 개선 지원 현황 >

사업명	산지가공시설	처리·저장시설
지원대상	어업인, 가공업자, 어촌계 등	수산업협동조합
지원기준	국30%, 지30%, 자40%	국30%, 지30%, 자40%
예산(개소수)	16,315백만원(58개소)	1,690백만원(5개소)

【추진일정】 ① 사업 시행(3월~) → ② 사업추진 중간점검(8월) → ③ 완공(12월)

② 차세대 스타품목 발굴

① 수산식품분야 R&D 투자 확대

- (수산가공기술 개발) 수산가공식품의 품질보존 및 개선기술 개발, 스마트 가공기자재, 지능형 포장재 개발 및 시스템 구축('18년 32억원)
- (신수산식품 개발) 수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식품 개발, 소비트렌드에 맞춘 간편식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18년 40억원)

【추진일정】 ① R&D 수요 조사(2월) → ③ R&D 추진(3월~)

②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 지원

- '상품 개발부터 수출준비'까지 일괄 지원(프로젝트별 1.4억)을 통해 현지시장에 특화된 수출목적형 프리미엄 상품 개발('18년 15.5억)
 - * (1단계) 신제품개발지원: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시장조사, 수출전략 수립, 해외인증 취득
 - ** (2단계) 마켓테스트 지원: 포장 디자인 개선, 브랜드 전략 수립, 수출자등록 등 수출준비
-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제품을 발굴하여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앵커숍 입점 등 해외 현지 홍보·마케팅 강화

【추진일정】 ① 참여업체 선정(4월) → ② 제품 개발(4~11월) → ③ 상품 출시(12월)

③ 수출유망품목 발굴·집중 육성

- 참치, 김을 이은 수출유망품목(K·FISH STAR)을 발굴(3~5개)하고, 유망품목별 수출 확대방안 마련

【추진일정】 ① 유망품목 업계 설문(4월) → ② T/F운영, 품목선정(5월) → ③ 확대방안 마련(8월)

④ 수산물 수출브랜드 대전 개최

- 기술력·홍보역량이 취약한 수산업계의 우수한 수출식품을 발굴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브랜드 대전' 개최, 수상제품 홍보·판로개척 지원

【추진일정】 ① 계획수립(8월) → ② 출품업체 모집(9~10월) → ③ 평가(11월) → ④ 시상(12월)

다 수산물 특화 물류인프라 확충

◇ 수출 수산물의 신선도·품질 제고를 위한 물류인프라 조성

① 국내 수산물 물류인프라 확대

①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건립

- 고급 활수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위생관리·질병제어 기능을 포함한 **활수산물 전용 물류센터 건립**

* ('17~'18) 부산 신항 웅동배후단지, ('18) 인천항·완도항 배후단지

- 수조시설, 컨테이너 안전검사·연구동, 오폐수처리 시설, 컨테이너 적치장, 부대시설 등 포함

【추진일정】 ① 실시설계(3~7월) → ② 물류센터 건립(8월~) → ③ 완공(12월)

②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

- 활수산물 대량운송을 위한 '활어 특수 컨테이너' 제작을 **확대***하고, 적용 노선 **확대****, 폐사율 저감 등 **연구개발 추진**

* ('17) 41대 → ('18) 46대 ** 美서부, 베트남 → 美동부, 캐나다 등

【추진일정】 ① 제작 설계 계약(3월) → ② 컨테이너 완공(9월~12월 순차 완공)

③ 국내 활어패류 물류센터 운영

- 인천공항 및 부산항 인근 수조시설 임대를 지원하여 **활어패류의 신선도 유지 등 수출 품질 제고**('18년 2.5억원, 10개사 내외 지원)

【추진일정】 ① 사용희망업체 모집 및 선정(3월) → ② 선정업체 활어수조 확보(3월) → ③ 3자계약(사용업체-수조업체 및 협회) 후 사용(3~12월)

② 해외시장 수출 물류·유통망 확충

①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

- 수출 수산물의 신선물류망(Cold Chain) 구축을 위해 수출국의 **주요 항만·공항 인근에 공동물류센터 확충**('18년 8.7억원, 20개소)

- 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수조시설 등*까지 **지원대상 확대**

* 냉동 저장시설 → 활어수조, 냉장·냉동 저장시설

【추진일정】 ① 수요조사(2월) → ② 공동 물류센터 지정·운영(3~12월)

② 현지 유통채널과의 연결 지원

- 해외진출 국내 대형 유통업체(CJ프레시안 등), 수출국 현지 유통기업(H마트 등)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신규 유통망 확보**

2 수산물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 비관세장벽 등에 따른 리스크 분산을 위해 시장 다변화 추진

1 신시장 개척 교두보 마련

① 수출지원센터 확대 설치

- 해외 현지에서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판로개척, 수출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유망시장으로 확대

* ('17) 7개소(중국·대만·베트남·미국·일본) → ('18) 10개소(미 동부, 태국, 말련 추가)

- 수출지원센터 내 **수출초보기업 인큐베이터***('17년 18개 → '18년 24개)를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2개) 및 **단기 교육과정***** 운영

* (인큐베이터) 수출초보기업에 대해 사무공간·회의실·사무기기 제공, 법률·통역 자문, 판로개척·통관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센터) 수출지원센터 개설지역에 단기간 출장 오는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바이어 상담 및 간단한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제공

*** (단기 교육과정) 센터의 정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현지 수출·통관 제도 안내, 소비 트렌드 소개, 유통 현장 방문, 수출 관계자 간담회 등을 약 일주일간 진행

【추진일정】 ① 사업계획 수립(2월) → ② 태국·말레이시아(5~6월), 미국 뉴저지(6~7월) 수출지원센터 개설 → ③ 인큐베이터 입주기업 공모(7~8월) → ④ 사업평가(12월)

② 앵커숍 운영 확대

- 우리수산물 인지도 확산을 위한 **단기 홍보매장 '앵커숍' 운영**(15개소)
- **중국, 동남아 등 주력시장에 집중 설치**하되, 유망 성장 권역별(유럽, 중동 등) 주요 **교두보 지역에 신규 설치**

* '17 → '18 연속(7개소): 체코, 네덜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 '18 신규: 중화권, 유럽, 동남아, 미주권, 중동 등 8개소 내외

【추진일정】 ① 운영주체 공모·선정(3~4월) → ② 앵커숍 운영(4~11월) → ③ 평가(12월)

③ 수출 유망시장 동향 분석

- 수산물 신흥 유망시장으로 떠오르는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과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권역별 수산물 생산·소비 동향 파악

【추진일정】 ① 조사대상국 선정(3월) → ② 아세안, 유럽 권역별 해외시장조사(4~11월) → ③ 시장분석 보고서 발간(12월)

2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시장 개척 지원

①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수출상담회 운영

-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해 주요 **국제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강화('17년 268개사 → '18년 363개사 / 11개 수산박람회)

- 박람회 참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박람회**에 선택과 집중하여 **규모화**하고, 시식행사 등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화**

- 한국관 내방 바이어 대상, **후속 상담회**를 실시하여 **상담성과 제고**

【추진일정】 수산박람회 기준 / ①보스톤(3월) → ②브뤼셀(4월) → ③방콕(5월) → ④도쿄·호치민·상해(8월) → ⑤홍콩·모스크바·광저우(9월) → ⑥부산(10월) → ⑦청도(11월)

② 신시장 개척단 파견

- 판로 개척 확대를 위해 수출지원센터 설치 국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연 4회)

* 바이어 수출상담회, 현지 유통업체 등 수산현장 방문, 수산 관계자 간담회 등

- 유통채널 **정보 수집**, 상품기획·매입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추진일정】 ① 참여업체 모집공고(2월, 5월) → ② 참여업체 선정 및 사전설명회 개최(3월, 6월) → ③ 상반기 수출상담회 개최(5~6월) → ④ 하반기 상담회 개최(10~11월)

나 수출통합브랜드 글로벌 런칭

◇ K·FISH를 세계 일류 브랜드로 육성하여 신규시장 개척

① K·FISH 브랜드 운영

① 수출통합브랜드 적용품목 확대 및 사용업체 모집

- (품목 확대) 현재 적용대상인 11개 품목* 외에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추가 선정하여 관련 품질평가기준 추가 마련('18.6. 품목 확정)

* 활납치, 전복(활, 가공품), 김(건조, 조미), 해삼(건조), 굴(냉동), 홍게살, 어묵(짬, 구이, 튀김, 어육소시지), 오징어(조미), 봉장어(필렛), 참치(통조림, 레토르트), 마른미역

- (사용업체 선정) K·FISH 사용업체 모집

* 선정 절차 : 사용신청(온라인, 방문)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사용승인(운영위원회) → 사용협약 체결·사용승인서 발급(관리기관) → 브랜드 사용(3년)

- 브랜드 상품에 대해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상품의 이화학적 검사 비용과 수출용 포장재 제작비 지원

【추진일정】 ① 확대품목 결정 및 품목별 품질평가기준 마련(3~12월) → ② 사용업체 모집(3~12월) → ③ 신청업체 선정평가(3월~12월) → ④ 수출실적 분석(12월)

② K·FISH 포털사이트(www.kfish.kr) 운영 및 지속적 관리

- K·FISH 사용승인 절차 진행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위해 브랜드 사용 신청 접수와 사용협약 체결 등을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

- B2B지원 플랫폼 및 K·FISH 모바일 웹 운영을 통하여 K·FISH 상품과 사용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지속적 홍보

* 오픈마켓 형태의 독립된 K-FISH 사용업체 페이지를 제공하여 바이어가 업체 담당자에게 견적을 문의할 수 있는 채널 운영

【추진일정】 K·FISH 상품과 업체 정보 업데이트로 지속적 홍보(3월~12월)

② K·FISH 브랜드 및 상품의 해외 홍보마케팅

① K·FISH 브랜드 해외 인지도 제고

- K·FISH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유명 모바일 요리앱*을 활용, 현지인에게 친숙한 K·FISH 품목(5개)의 레시피 개발·확산

* 시하추팡(下廚房)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중국내 영향력 상당(요리앱 중 다운로드 1위('17) 차지)

-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영화관 CGV와 연계하여 K·FISH 상품인 어묵, 김 등을 포함한 콤보세트 판매 및 K·FISH 스크린 광고

* ('17) 20개소 판매(28일) 및 홍보(14일) → ('18) 10개소 판매(2개월) 및 홍보(1개월)

- 중국 현지 식당인 비비고*(bibigo)에서 K·FISH 품목(3개)을 활용,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 판매 및 홍보

* 중국 주요 도시에서 프리미엄 한식당을 추구하며,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한 메뉴 판매로 성황리에 영업(북경, 상하이, 광저우 등 지역에 15개 개소)

【추진일정】 ① K·FISH 레시피 개발(3월~6월) → ② '시하추팡'을 활용한 홍보 및 파워유저를 통한 확산(6월~12월) → ③ 비비고에서 판매 및 홍보(6월~12월)

② K·FISH 상품 해외 주요마트 입점

- 주요 수출국*(중국, 동남아시아)의 고급대형마트에서 중상류층 고객을 대상으로 K·FISH 상품 전문 판매코너 설치, 상품 판매 및 홍보

* 국가(마트) : 중국(CITY SHOP, BHG, 果蔬好), 싱가포르(Jason the Gourmet Grocer, The seafood Market Place by songfish, FairPrice Finest, Emporium Shokuhin)



【추진일정】 ① 입점마트 선정(4월~5월) → ② K·FISH 입점상품 협의(5월~6월) → ③ 판매코너 설치, 상품 판매, 홍보(7월~12월) → ④ 개선방안 마련(12월)

다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강화

◇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1 성과 중심의 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① 수산물 수출 통합마케팅

- 현지 소비자의 인지도 높은 대형 이벤트와 유력 유통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융합 마케팅 추진**

< 수출 통합마케팅 추진(안) >

주요 내용	일정
- (중국) 서부 '한국우수상품대전' 참가	5월
- (홍콩) AEON '한국우수상품대전' 참가	6월
- (미국) 동부 수산물 특판전 개최	7월
- (중국) 상해 Wine&Dine Festival 참가	9월
- (중국) 2018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11월
- (한국) 코리아그랜드소싱페어 K-FISH 홍보관 운영	11월

【추진일정】 ①사업수행자 모집 공고(3월) → ③사업계획수립 및 수행(4월~)

② 국내 방한관광객 홍보관 운영

- 노량진 수산시장, HDC신라면세점, 부산 크루즈 터미널 등 주요 관광지에 수산식품 홍보매장 운영



【추진일정】 ① 홍보매장 운영(연중) → ② 시식·홍보행사(부산, 반기 1회)

- 단체여행을 주관하는 전문여행사와 연계하여 '조미감' 증정 등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 체험·시식 기회 제공

③ 시식·판촉행사 확대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인니 등 할랄지역 및 중국 내륙 지역(2,3선 도시)의 수산물 시식·판촉행사 개최**

【추진일정】 ① 사업자 공모(3월) → ② 판촉행사 추진(4~11월) → ③ 성과관리(12월)

④ 언론 및 재외공관 대상 홍보 강화

- **중국, 일본의 미디어를 국내에 초청, 취재를 지원하여 우리 수산물에 대한 해외 언론 노출 확대 및 긍정적인 여론 형성 유도**

- 현지 미디어 초청 시 **해외 제휴기업 관계자를 함께 초청**

【추진일정】 ① 1차 해외 언론 팸투어(10월) → ② 2차 해외 언론 팸투어(11월)

- **현지 주류계층에 한국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재외공관 연계 'K-SEAFOOD Royal' 행사 추진(4개국)**

【추진일정】 ① 사업계획 수립(3월) → ② 공관별 행사추진(~11월)

【추진대상국】 일본, 중국, 스페인, 영국 등

⑤ 지자체 협력 마케팅

- 지자체와의 사전조율을 통해 **마케팅 유형별*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지역 명품 수산물 홍보를 위한 지원 확대****

* 수출상담회·박람회·엑스포 참가, 판촉홍보 추진, 시장개척단 파견 등

** 지역명품수산물 홍보 : 지자체의 해외 홍보마케팅 50% 지원('18. 12개 지자체 예정)

【추진일정】 ① 지자체 선정(2월) → ② 지자체별 세부사업계획수립(3월) → ③ 사업추진(~11월)

2 온·오프라인 채널 및 미디어 활용 수출마케팅 확대

① 한국수산물주간 운영

-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단기간에 홍보마케팅 행사를 집중하는 'K·SEAFOOD Global Week' 운영*

* '18.11.3~ 약 2주간(매년 11월 첫째 토요일 시작), 약 10개국 동시 진행

- 참여업체·매장 확대,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행사 활성화 추진



② 온라인·모바일몰 입점 확대

-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 주요 온라인마켓에 입점하여 한국 수산물 판촉·홍보 추진으로 신 유통망 진출 확대

【추진일정】 ① 사업자 공모(3월) → ② 사업 추진(4~11월) → ③ 성과관리(12월)

③ SNS 등 뉴미디어 활용 확대

- 한국 수산물 홍보 영상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방영('18.11)하고, SNS 홍보를 위해 'K·FISH 서포터즈' 운영('18.下, 40명 위촉)

④ 미디어 홍보 강화

- 해외(중국, 말련, 베트남) 드라마, 예능 등 유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수산물 간접광고(PPL) 및 유력인사(파워블로거 등) 활용 홍보

【추진일정】 ① 유력매체 및 인사 선정(5월) → ② 프로그램 방영 등 홍보(하반기)

3 수출업계 애로 해소 및 역량 강화

가 비관세장벽 효과적 대응

◇ 비관세장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

1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마련

① 비관세장벽 동향 모니터링 강화

- 비관세장벽 관련 업계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민·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수산물 수출대책회의' 개최
- 특히 동향 발생 시 수출지원센터, aT 해외지사, 해외시장분석센터, 관련 업·단체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업계 신속 전파

【추진일정】 '민관합동 수산물 수출대책회의' 개최 (반기별)

② 통관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 통관거부 등 수출장애 발생 시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FTA 산하위원회, 통상채널 등을 통해 凡부처 공동 대응

2 원활한 수산물 수출 통관 지원

- 수출 수산물 현지화 지원*, 샘플통관비용 지원**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의 즉각적 해소 추진

*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라벨링 제작·등록, 상표권 출원, 포장패키지 현지화 등

** 시험수출 및 샘플통관을 위한 운송·통관비의 90% 지원

- 중국 One-Stop 시험수출 지원을 통한 샘플통관, 검역, 물류운송 등 수출 제반사항 윈스톱 서비스 제공 및 비관세장벽 적극 대처

【추진일정】 ① 사업자 공모(3월) → ② 통관·등록 지원(4월~)

나 수출업계 성장사다리 마련

◇ 영세 수산물 수출업계의 체질을 개선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1 창업 및 수직·수평 계열화 유도

① 수산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활성화

- 수산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조성된 자펀드(투자조합)가 **수출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출분야 투자 활성화 도모

* 수출분야 투자금액이 결성금액 대비 일정비율(40%) 이상일 경우, 투자자의사 결정을 하는 업무집행 조합원의 성과보수 및 수익배분 상 인센티브 제공

【추진일정】 ① 인센티브 지급기준(1월) → ② 정기출자공고(2월) → ③ 운용사 선정(4월) → ④ 조합결성 완료(8월) → ⑤ 투자시행(연중)
(단, 정기출자를 통한 운용사 미선정시 수시출자 실시, 4월 이후)

② 수출전문조직 육성

-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는 **전문조직***(단일업체 또는 협의체)을 지정하여 마케팅비용 등 **집중 지원**('18년 12억원)

* '17년까지 분리 운영하던 수출협의회와 선도조직 사업을 통합하여 칸막이 제거

【추진일정】 ① 사업자선정 공고(3월) → ② 심사평가 및 사업자선정·약정체결(4월) → ③ 사업추진(4~11월) → ④ 사업평가 및 정산(12월)

2 수출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

① 중소 가공·수출업체의 유동성 지원

- 수출업체의 **국산 원료 구매 및 경영자금, 가공업체의 시설운영 자금** 등에 대한 **단기 융자 지원**

* 원료구매·경영자금 지원(우수수산물 지원): ('17) 1,300억원 → ('18) 1,330억원

* 수산물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17) 217억원 → ('18) 217억원

【추진일정】 ① 지원업체 공모·선정(1~2월) → ② 융자(3월~)

② 수출보험 지원

- 환변동, 대금 미회수, 반품 등 **수출위험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매월 모집공고, '18년 8억원)

< 수출보험 보장 내용 >

구 분	보장내용
환변동 보험	환율 하락시 보상하고, 상승시 환수금 면제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수출대금 미회수, 검역 반송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수출신용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 시 신용보증료 지원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 바이어의 재무현황, 소송내역 등 조사 수수료 지원

【추진일정】 ① 사업계획 수립(2월) → ② 지원 신청 및 지원(3월~)

③ 해외시장분석센터 상시 운영

- 수출전략 수립에 요구되는 수산물·수산식품 관련 정보의 심층분석 제공을 위한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

* 수출 중점대상국 시장조사 분석, 수출현안 발굴·심층분석,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분석, 수산물 수출동향 분석, 국가별·품목별 수출통계 D/B 구축 등

- 해외시장 정보 확산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출정보포털을 통해 **해외시장·정부지원 사업 관련 정보 제공****

*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지역·업계에 맞는 수출정보를 중심으로 교육 실시

** (시장분석정보) 국가별·품목별 시장보고서, 최신동향 뉴스, 수출절차 등 (통계정보) 국내외 수산물 교역자료, 주요국 수산물 생산·소비자료, 가격정보 등

④ 업계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주요 권역별 실시)

- '18년도 수산물 수출 전망,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수출업계에 제공하여 정부 지원사업의 수요확대 도모

* 수출통합브랜드 운영,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V. 향후 추진일정

수출지원사업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출 목표 : 총 27억불			201	386	607	842	1,097	1,330	1,570	1,800	2,000	2,230	2,480	2,700						
월별(백만불)			215	171	221	235	255	233	240	230	200	230	250	220						
1.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첨단 생산체계 구축			현장 설명회	친환경 양식어업모					친환경 양식장 컨설팅·모니터링			친환경 양식장 준공					
		위생관리 강화	수출 수산물 품질관리 강화 (살미한화지원)			수요조사 및 공고	업체 선정	사업 추진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등 설치기기 현장 확인 및 검수									
			국제인증 취득 지원			인증취득 모집 공고	모집 홍보									인증 취득				
	글로벌 수산물 산업 육성	수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거점단지, 클러스터 조성 확대	클러스터 전남권·부산권 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및 설계용역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저리저장시설, 선지가공시설)			사업 시행							사업추진 중간점검			완공				
			수산물분야 R&D 확대			R&D 수요 조사	R&D 추진													
			차세대 스타상품 발굴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식품 개발 지원			참여업체 선정	제품 개발												상품 출시
				수출유망품목 발굴 육성			업체 설문	T/F 운영 품목선정					확대방안 마련							
	수산물 특화 물류 인프라 확충	국내 수산물 물류인프라 확대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건립	실시 설계												물류센터 건립	평가	시상		
			해외 컨테이너 지원			제작 설계 계약										컨테이너 완공				
			국내 할어패류 물류센터			업체선정 수조 확보	3자계약 및 업체 이용													
			해외 공동 물류센터 확충			수요 조사	공동물류센터 지정·운영													

수출지원사업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수산물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신시장 개척 교두보 마련	수출지원센터 확대 설치		사업계획 수립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뉴저지) 수출지원센터 개설	입주기업 공모					사업평가				
			앵커숍 운영 확대			사업자 공모·선정	앵커숍 운영												사업평가
			수출 유망시장 동향 분석			대상국 선정	아세안, 유럽 권역별 해외시장 조사												보고서 발간
	유망시장 개척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보스톤	브뤼셀	방콕				도쿄, 상해 호치민	홍콩 광저우 모스크바	부산	중국(청도)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참여 업체 모집 공고	참여 업체 선정		참여 업체 모집 공고	참여 업체 선정						하반기 상담회 개최				
	수출통합 브랜드 글로벌 런칭	K-FISH 브랜드 운영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품목 확대 및 사용업체 모집	수출통합브랜드 확대품목 결정 및 품목별 품질평가기준 마련, 사용업체 모집 및 선정업체 선정평가(연중)												수출실적 분석			
			K-FISH 포털 운영 및 관리	B2B 플랫폼, 모바일 웹의 브랜드 사용업체 및 상품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레이피업을 활용한 홍보	K-FISH 레이피 개발												레이피업을 활용한 홍보 및 파워유저를 통한 확산			
			CGV 홍보	콤보세트, 홍보방안 협의												K-FISH 콤보세트 판매 및 홍보(2달간)			
			K-FISH 상품 해외 입점			입점마트 선정	입점 상품 협의	K-FISH 판매코너 설치, 상품 판매 및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강화	성과 중심의 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수산물 수출 통합마케팅			모집공고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국내 홍보관 설치	홍보매장 운영(연중), 시식·홍보행사(부산, 반기 1회)															
			사사관축행사 확대			사업자 공모	관측행사 추진												성과관리
			해외 언론 팸투어												1차 해외언론 팸투어	2차 해외언론 팸투어			
			K-Seafood Royal			사업계획 수립	공관별 행사추진(일본, 중국, 스페인, 영국 등)												
	지자체 협력 마케팅			지자체 선정	세부계획 수립	사업 추진													

수출지원사업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수산물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강화	온-오프라인 채널 및 미디어 활용 수출마케팅 강화	한국수산물주간 운영													Global Week 운영	
			온라인몰 입점 확대			사업자 공모	사업 추진										성과관리
			SNS 등 뉴미디어 활용 확대							K-FISH 서포터즈 위촉							홍보영상 온라인 방영
			미디어 홍보 강화					유력매체 및 인사 선정	드라마, 예능 등 간접광고(PPL) 방영								
3. 수출업계 애로 해소 및 역량 강화	비관세장벽 대응 효과적 대응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마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민관합동 수출대책 회의 개최								민관합동 수출대책 회의 개최				
		수산물 통관 지원	수산물 통관 지원			사업자 공모	통관·등록 지원										
	수출업계 성장 사다리 마련	창업 및 수직수평 계열화 유도	수산물태펀드 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지급기준	정기출자 공고		운용사 선정						조합결성 완료				
			수출전문조직 육성			사업자 공모	심사평가, 사업자선정, 약정체결	사업추진									
		수출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	중소·가공수출업체 유동성 지원	사업자 공모	업체 선정	용자											
			수출보험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	상시 운영													
			권역별 사업설명회			상반기 설명회										하반기 설명회	

국가별·품목별 수출확대 전략

1 주요 국가별 수출전략

가 일본 [수출목표 : 810백만불, 5% ↑]

1. 수산물 교역 현황

□ (수산물 수입) 세계 2위(약 10.9%) 수산물 수입국가로서 연간 약 147억불을 수입하며, 소비 감소 등으로 수입 감소 추세

* 일본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 : ('14) 50.2 → ('15) 50.2 → ('16) 48.2 → ('17) 47.7 → ('18) 48.2

○ 중국(26억불, 18%), 미국(13억불, 9%), 칠레(12억불, 8%), 태국(10억불, 7%) 순

*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8위 수산물 수입 국가(수입비중 5%)

○ 새우(25억불, 17%), 참치(21억불, 14%), 연어(14억불, 9%), 계(8억불, 5%) 순

(단위 : 백만불)

구분	'14년(%)	'15년(%)	'16년(%)	평균(%)
전체	15,579(100.0%)	14,077(100.0%)	14,573(100.0%)	14,743(100.0%)
새우	2,813(18.1%)	2,310(16.4%)	2,406(16.5%)	2,509(17.0%)
참치	2,141(13.7%)	1,960(13.8%)	2,084(14.3%)	2,062(14.0%)
연어	1,375(8.8%)	1,319(9.4%)	1,360(9.3%)	1,351(9.2%)
계	813(5.3%)	721(5.1%)	824(5.7%)	789(5.3%)

□ (우리나라 수출) '17년 수산물 수출액은 772백만불로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상대국(33.1%)이며, 엔저 등으로 감소하다 '16년부터 반등

* 대일본 수산물 수출(억불) : ('13) 8.1 → ('14) 7.6 → ('15) 6.6 → ('16) 7.4 → ('17) 7.7

○ 참치(210백만불, 27%), 김(115백만불, 15%), 봉장어(50백만불, 7%) 순이며, 냉동 원물(296백만불, 38%)과 활어·가공품 등(476백만불, 62%)으로 구성

(단위 : 천불)

구분	'16년(%)	'17년(%)	증감	증감률(%)	
전체	737,015(100.0%)	771,713(100.0%)	34,697	4.7	
증가 품목	김	78,294(10.6%)	114,763(14.9%)	36,469	46.6
	전갱이	7,822(1.1%)	13,329(1.7%)	5,507	70.4
감소 품목	삼치	11,837(1.6%)	6,543(0.8%)	△5,293	△44.7
	바지락	38,650(5.2%)	33,789(4.4%)	△4,861	△12.6

2. '18년도 수출 추진방향

◇ [호재]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수입가격 상승 등

◇ [경계] 환율 변동 확대 등

< 품목별 수출 전망 >

- ① (참치) 경기 회복에 따른 업무용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세 지속
- ② (김) 일본 내 김 생산량 회복에 따라 마른김 수출 위축
- ③ (전복) 지속적 수요 및 국내 생산 호조에 따라 수출 증가
- ④ (넙치) 활어 소비 위축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구분	참치	김	전복	넙치(활어)
일본 對세계 수입 (한국 비중, '16년)	21억\$ (9.3%)	0.8억\$ (87.1%)	0.8억\$ (62.2%)	0.3억\$ (100.0%)
한국 對일 수출 ('15→'16→'17, 백만\$)	189→207→210	51→78→115	38→47→48	27→31→30
對일 수출품목 ('17년)	①필렛: 78% ②황다랑어: 6.0%	①마른김: 58% ②조미김: 42%	①활·신냉: 94% ②냉동: 4%	①활어: 100%

□ 수출 인프라 구축

- (수출 거점 확보) 일본 수출판로 개척, 수출애로 해소 등 현지 맞춤형 지원을 위해 '동경'에 수출지원센터 운영
- (물류 인프라 확충) 활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물류센터를 건립(부산신항)하고, 주요 항만·공항 내 공동물류센터 운영

□ 수출 리스크 관리 등

- (환변동 대응) 환율 하락에 대비, 환변동 보험 등 수출보험지원
- (비관세장벽 대응) 양식장 위생관리를 통해 쿠도아 등의 이슈를 사전 방지하고, 통관기간 단축을 위해 수출업계에 사전등록 교육
- (품질관리 강화) 마른김 가공단계에서 위생적인 세척수를 사용하고, 이물질 제거하는 등 우리나라 김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강화

나 중 국 (수출목표 : 430백만불, 15% ↑)

1. 수산물 교역 현황

□ (수산물 수입) 세계 3위(약 6.8%) 수산물 수입국가로서 연간 약 90억 불을 수입하며,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 추세

* 중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 ('14) 39.7 → ('15) 40.7 → ('16) 42.1 → ('17) 44.5 → ('18) 45.4

○ 러시아(14억불, 15%), 미국(13억불, 14%), 페루(8억불, 11%), 캐나다(5억불, 6%) 순

*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16위 수산물 수입 국가(수입비중 2%)

○ 어분(17억불, 18%), 새우(11억불, 12%), 연어(8억불, 9%), 명태(8억불, 8%) 순

(단위 : 백만불)

구 분	'14년(%)	'15년(%)	'16년(%)	평 균(%)
전 체	9,120(100.0%)	8,852(100.0%)	9,167(100.0%)	9,046(100.0%)
어 분	1,562(17.1%)	1,797(20.3%)	1,617(17.6%)	1,659(18.3%)
새 우	962(10.5%)	1,111(12.6%)	1,184(12.9%)	1,086(12.0%)
연 어	788(8.6%)	712(8.0%)	823(9.0%)	774(8.6%)
명 태	846(9.3%)	754(8.5%)	667(7.3%)	756(8.4%)

□ (우리나라 수출) '17년 수산물 수출액은 373백만불로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상대국(16.0%)이며, 사드 영향으로 소폭 감소(0.9% ↓)

* 대중국 수산물 수출(억불): ('13) 3.7 → ('14) 3.1 → ('15) 3.1 → ('16) 3.8 → ('17) 3.7

○ 김(89백만불, 24%), 대구(41백만불, 11%), 삼치(32백만불, 9%) 순이며, 냉동 원물(207백만불, 55%)과 활어·가공품 등(166백만불, 45%)으로 구성

(단위 : 천불)

구 분	'16년(%)	'17년(%)	증감	증감률(%)
전 체	376,962(100.0%)	373,148(100.0%)	△3,544	△0.9
증가 품목				
김	68,221(18.1%)	88,929(23.8%)	20,709	30.4
대구	27,788(7.4%)	40,818(10.9%)	13,030	46.9
감소 품목				
전복	14,590(3.9%)	315(0.1%)	△14,276	△97.8
명태	12,062(3.2%)	2,504(0.7%)	△9,559	△79.2

2. '18년도 수출 추진방향

◇ (호재) 한-중 관계 개선, 시장개척 노력 지속 등

◇ (경계) 중국 내 주요 품목 생산 회복 등

< 품목별 수출 전망 >

- ① (김) 중국 내 생산량 회복으로 마른김 수출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소비재 품목인 조미김은 전년 수준 유지 혹은 소폭 증가
- ② (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수출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으나, 생산량 회복시 수요 증가, 수출가격 상승으로 수출액 증가 기대
- ③ (어묵) 한-중 관계 개선으로 어육 소시지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
- ④ (전복) 중국 내 생산 회복으로 전년 수준 유지

구 분	김	오징어	어묵	전복
중국 對세계 수입 (한국 비중, '16년)	0.8억\$ (60.7%)	4.7억\$ (7.2%)	0.5억\$ (36.2%)	0.2억\$ (17.7%)
한국 對중 수출 ('15→'16→'17, 백만\$)	66→68→89	38→30→22	21→23→22	0.0→14.6→0.3
對중 수출품목 ('17년)	①조미김: 70% ②마른김: 30%	①냉동: 98% ②조미: 2%	①소시지: 95% ②생선묵: 5%	①활·신냉: 93% ②기타조제: 5%

□ 수출 리스크 관리

- (모니터링 강화) 對중국 수출 동향, 통관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비관세장벽 관련 특이사항 업계 신속 전파
- (비관세장벽 해소) 통관거부 등 수출장애 발생 시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對중 통상채널을 통해 범부처 공동 대응

□ 수출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홍보

- (수출거점 확보) 주요 수출 거점에 수출지원센터(상해, 청도, 북경) 운영
- (통관 지원) 샘플통관, 검역, 물류운송 등 수출 제반사항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중국 One-Stop 시험수출 지원 시행
- (온·오프라인 홍보) 한국에 친숙한 젊은 층 공략을 위해 CGV와 연계하여 K-FISH 상품 등 우리수산식품을 판매·광고하고, 드라마, 예능 등 유력프로그램에 우리 수산식품 간접광고(PPL) 홍보

1. 수산물 교역 현황

□ (수산물 수입) 세계 1위(약 15.8%) 수산물 수입국가로서 연간 약 213억불을 수입하며, 수산물 수입 보합세

* 미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 ('14) 23.6 → ('15) 23.8 → ('16) 23.0 → ('17) 22.8 → ('18) 22.8

○ 캐나다(32억불, 15%), 중국(28억불, 13%), 칠레(20억불, 9%), 인니(18억불, 8%) 순

*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17위 수산물 수입 국가(수입비중 1%)

○ 새우(63억불, 30%), 연어(33억불, 15%), 참치(16억불, 8%), 계(16억불, 8%) 순

(단위 : 백만불)

구 분	'14년(%)	'15년(%)	'16년(%)	평 균(%)
전 체	22,160(100.0%)	20,651(100.0%)	21,118(100.0%)	21,310(100.0%)
새 우	7,103(32.1%)	5,870(28.4%)	6,070(28.7%)	6,348(29.8%)
연 어	3,248(14.7%)	3,042(14.7%)	3,534(16.7%)	3,275(15.4%)
참 치	1,720(7.8%)	1,620(7.8%)	1,594(7.5%)	1,645(7.7%)
계	1,628(7.3%)	1,564(7.6%)	1,613(7.6%)	1,601(7.5%)

□ (우리나라 수출) '17년 수산물 수출액은 280백만불로 우리나라 제3위 수출상대국(12.0%)이며, 미국 경제 호전 등으로 성장세 지속

* 對미국 수산물 수출(억불): ('13) 2.2 → ('14) 2.2 → ('15) 2.3 → ('16) 2.4 → ('16) 2.8

○ 김(87백만불, 31%), 이빨고기(52백만불, 19%), 굴(19백만불, 7%) 순이며, 냉동 원물(104백만불, 37%)과 활어·가공품 등(176백만불, 63%)으로 구성

(단위 : 천불)

구 분	'16년(%)	'17년(%)	증감	증감률(%)	
합 계	241,261(100.0%)	280,090(100.0%)	38,829	16.1	
증가 품목	김	70,331(29.2%)	86,581(30.9%)	16,250	23.1
	이빨고기	37,341(15.5%)	52,123(18.6%)	14,781	39.6
감소 품목	오징어	17,850(7.4%)	13,977(5.0%)	△3,873	△21.7
	멸치	5,821(2.4%)	3,406(1.2%)	△2,415	△41.5

2. '18년도 수출 추진방향

- ◇ (호재) 경기 개선, 수산물 수요 증가 등
- ◇ (경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달러화 약세 등

< 품목별 수출 전망 >

- ① (김) 유기농 김 등 프리미엄 시장 성장으로 수출 호조세 지속 (고급김 시장 공략 필요)
- ② (이빨고기) 소득 향상에 따른 수요 증가, 생산 호조 등으로 수출 증가
- ③ (굴) 소비 회복, 가공품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 (단, FDA 국내 양식장 실사는 경계 요인)
- ④ (넙치) 美 화교시장 개척, 물류여건 개선 등으로 수출 호조세 지속

구 분	김	이빨고기	굴	넙치(활어)
미국 對세계 수입 (한국 비중, '16년)	-	2.4억\$ (16.5%)	0.7억\$ (25.8%)	0.1억\$ (89.3%)
한국 對미 수출 ('15→'16→'17, 백만\$)	72→70→87	30→37→52	18→16→19	11→12→12
對미 수출품목 ('17년)	①조미김: 92% ②마른김: 8%	①냉동: 100%	①냉동: 58% ②밀폐용기: 39%	①활어: 100%

□ 수출 인프라 구축

- (수출거점 확보) 현지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LA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동부지역(뉴저지)에 지원센터 추가 개설
- (신선물류망 확보) 수출물류센터(부산 신항), 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하고, 활어 대량운송을 위한 활어 컨테이너 제작 확대(5대)

□ 수출 리스크 관리 등

- (수출애로 해소) 수입수산물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 보호무역 기초, 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16.下) 등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와 관련한 정보제공·수출자 교육 강화
- (미국시장 정보 제공)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현지 수산물 유통·소비 트렌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업계에 제공

1. 수산물 교역 현황

□ (수산물 수입) 태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연간 약 72억불(전체 수입의 5%)을 수입하며, 최근 수산물 수입은 70억불 내외에서 **보합세**

* ASEAN 수입국: 태국(29억불, 39.7%), 베트남(13억불, 18.1%), 싱가포르(11억불, 15.5%)

○ 중국(11억불, 15%), 인도(6억불, 8%), 인니(5억불, 7%), 베트남(5억불, 7%) 순

* 우리나라는 ASEAN의 제10위 수산물 수입 국가(수입비중 4%)

○ 참치(16억불, 23%), 새우(9억불, 12%), 오징어(5억불, 7%), 연어(5억불, 7%) 순

(단위 : 백만불)

구분	'14년(%)	'15년(%)	'16년(%)	평균(%)
합계	7,214(100.0%)	6,879(100.0%)	7,593(100.0%)	7,229(100.0%)
참치	1,607(22.3%)	1,507(21.9%)	1,786(23.5%)	1,633(22.6%)
새우	1,083(15.0%)	842(12.2%)	766(10.1%)	897(12.4%)
오징어	454(6.3%)	464(6.7%)	559(7.4%)	492(6.8%)
연어	480(6.7%)	445(6.5%)	502(6.6%)	476(6.6%)

□ (우리나라 수출) '17년 수산물 수출액은 408백만불로 수출액의 17.5% 차지, 수출국 다변화 등으로 '14년 이후 성장세 지속

* 대ASEAN 수산물 수출(억불): ('13) 3.2 → ('14) 2.7 → ('15) 3.0 → ('16) 3.5 → ('17) 4.1

○ 참치(189백만불, 46%), 김(95백만불, 23%), 어란(16백만불, 4%) 순이며, 냉동 원물(264백만불, 65%)과 활어·가공품 등(144백만불, 35%)으로 구성

(단위 : 천불)

구분	'16년(%)	'17년(%)	증감	증감률(%)	
합계	347,640(100.0%)	407,786(100.0%)	60,146	17.3	
증가 품목	김	71,404(20.5%)	94,925(23.3%)	23,521	32.9
	참치	171,911(49.5%)	188,760(46.3%)	16,849	9.8
감소 품목	공치	2,325(0.7%)	734(0.2%)	△1,591	△68.4
	낙지	1,100(0.3%)	196(0.0%)	△903	△82.1

2. '18년도 수출 추진방향

- ◇ (호재) 한류 확산, 원료 수산물 수요 증가, 수출지원센터 확대 등
- ◇ (경계) 주요 품목 생산 불확실성 확대 등

< 품목별 수출 전망 >

- ① (참치) 수출선 다변화(남미 시장 등)로 인한 물량 부족으로 전년 수준 유지
- ② (김) 한류 확산으로 소비재 품목인 조미김 수출 증가
- ③ (오징어) 수출물량 부족, 가격 상승으로 전년 수준 유지
- ④ (이빨고기) 新시장 개척(베트남), 고급 수산물 수요 증가로 수출 반등

구분	참치	김	오징어	이빨고기
아세안 對세계 수입 (한국 비중, '16년)	17.9억\$ (11.5%)	-	5.6억\$ (1.4%)	1.0억\$ (7.0%)
한국 對아세안 수출 ('15→'16→'17, 백만\$)	149→172→189	52→71→95	11→13→13	8→7→6
對아세안 수출품목 ('17년)	①가다랑어: 72% ②황다랑어: 20%	①마른김: 81% ②조제김: 19%	①냉동: 96% ②조미: 2%	①냉동: 100%

□ 수출 인프라 구축

- (수출거점 확보) 수출전진기지 확보를 위해 베트남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에도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장 동향 파악 등 수행

□ 현지 맞춤형 홍보·마케팅

- (국제인증 지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할랄 시장 공략을 위해 할랄인증 등 국제인증 취득 지원
- (국제박람회 참가) ASEAN의 바이어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해 방콕·호치민 수산박람회에 참가하고,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 (한류 마케팅) 한류 활용 마케팅으로 우리 수산물 인지도 제고 및 중상류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K·FISH 상품 판매코너 설치(대형마트)

1. 수산물 교역 현황

- (EU의 수산물 수입) EU는 연간 약 268억불을 수입하며 증가 추세
 - * EU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 ('14) 22.4 → ('15) 22.1 → ('16) 23.6 → ('17) 24.1 → ('18) 24.3
 - 노르웨이(67억불, 25%), 중국(19억불, 7%), 모로코·에콰도르(13억불, 5%) 순
 - * 우리나라는 EU의 제35위 수산물 수입 국가(수입비중 0.4%)
 - 연어(59억불, 22%), 새우(49억불, 18%), 참치(29억불, 11%), 대구(28억불, 11%) 순

(단위 : 백만불)

구분	'14년(%)	'15년(%)	'16년(%)	평균(%)
합계	28,225(100.0%)	25,054(100.0%)	27,175(100.0%)	26,818(100.0%)
연어	6,255(22.2%)	5,417(21.6%)	6,627(24.4%)	5,917(22.1%)
새우	5,434(19.3%)	4,675(18.7%)	4,682(17.2%)	4,930(18.4%)
참치	3,349(11.9%)	2,757(11.0%)	2,742(10.1%)	2,949(11.0%)
대구	2,816(10.0%)	2,747(11.0%)	2,934(10.8%)	2,832(10.6%)

- (우리나라 수출) '17년 수산물 수출액은 211백만불로 수출액의 9.0% 차지, 안정적인 참치 수요 등으로 증가세 유지

- * 대EU 수산물 수출: ('14) 1.3억불 → ('15) 1.3억불 → ('16) 1.6억불 → ('17) 2.1억불
- 참치(137백만불, 65%), 김(24백만불, 12%), 연어(4백만불, 2%) 순이며, 냉동 원물(166백만불, 79%), 활어·가공품 등(45백만불, 21%)으로 구성

(단위 : 천불)

구분	'16년(%)	'17년(%)	증감	증감률(%)	
합계	156,674(100.0%)	210,746(100.0%)	54,071	34.5	
증가 품목	참치	110,748(70.7%)	137,301(65.1%)	26,552	24.0
	김	11,662(7.4%)	24,433(11.6%)	12,771	109.5
감소 품목	오징어	4,306(2.7%)	3,714(1.8%)	△592	△13.8
	홍합	616(0.4%)	195(0.1%)	△421	△68.3

2. '18년도 수출 추진방향

- ◇ [호재] 수산물 소비 확대, 신흥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 등
- ◇ [경계] 유로화 약세 전망,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 품목별 수출 전망 >

- ① (참치) 초밥 문화 확산에 따른 횡감용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세 지속
- ② (김) 김에 대한 인지도 확산, 지속적 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증가
- ③ (게살) 지속적 수요, 다양한 제품 개발 노력 등으로 수출 증가
- ④ (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물량 확보 한계, 전년 수준 유지 혹은 소폭 증가

구분	참치	김	게살	오징어
EU 對세계 수입 (한국 비중, '16년)	27.4억\$ (3.9%)	-	0.5억\$ (7.0%)	11.8억\$ (0.2%)
한국 對EU 수출 ('15~'16~'17, 백만\$)	85→111→137	11→12→24	4→4→4	2→4→4
對EU 수출품목 ('17년)	①피레트: 60% ②황다랑어: 29%	①조미김: 98% ②마른김: 1%	①붉은대게: 100%	①냉동: 96% ②조미: 3%

□ 현지 맞춤형 홍보·마케팅

- (박람회 참가) 브뤼셀 국제수산물박람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하여 EU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 * 박람회 참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EU 시장진출 애로사항 발굴
- (국제인증 지원) 가치소비(환경, 자원 등)를 중시하는 EU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고려하여 ASC, MSC 등 각종 주요 국제인증 취득 지원
- (품목 다양화) EU 소비자의 취향을 공략하는 수출유망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신선냉장 넘치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 확대

□ 수출 인프라 구축

- (물류·판매망 확보) EU 내 주요 물류거점에 활어수조, 냉장·냉동 창고 등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여 수출물류 교두보로 활용하고, 우리수산물 인지도 확산을 위한 단기 홍보매장 '앵커숍' 운영

2 주요 품목별 수출전략

가 참 치 (수출목표 : 720백만불, 15% ↑)

1. 현 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생산량(천톤)	277	328	323	337	349
수출물량(천톤)	162	222	223	225	194
수출금액(백만불)	556	577	490	576	625
수출가격(천불/톤)	3.4	2.6	2.2	2.6	3.2

□ (생산) 국제적인 어획량 규제 등으로 인해 **연간 3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 참치 생산량은 **35만톤**(전년 대비 3.4% ↑)

○ **횃감용 고급 참치**(참다랑어 0.2%, 눈다랑어 6.0%)는 **10% 미만**이며, 통조림 원료인 **가다랑어**(62.6%), **황다랑어**(28.9%)가 **90% 이상** 차지

□ (수출) '17년 참치 수출은 **625백만불**(전체 수출의 26.9%)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8.6% 증가**(다만, 수출물량은 13.7% 감소)

* 참치 수출액 : ('14) 5.6 → ('14) 5.8 → ('15) 4.9 → ('16) 5.8 → ('17) 6.3

○ (품목별) 횃감용 참치·통조림(2%) 등의 수출실적은 미미한 반면, 태국 등으로 수출되는 **가공용 냉동 참치**(98%)가 수출의 **대부분** 차지

○ (국가별) **일본**(33.6%), **태국**(22.5%), **프랑스**(8.0%) 등 **70개국**에 수출

(단위 : 백만불)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577	490	576	625
① 일 본	243	189	207	210
② 태 국	90	88	109	141
③ 프 랑 스	25	39	43	50

2. '18년도 참치 수출전략

- ◇ [생산 전망] 가공용(가다랑어 등 생산은 감소, 횃감용(눈다랑어 등) 생산은 증가
- ◇ [호재] 신흥국 수요 증가, 수출가격 상승 등
- ◇ [경계] 연안국의 자원민족주의 강화, 입어료 상승, 원화강세 등

< '18년도 참치 수출전망 >

- 라니냐 영향으로 가공용 참치(가다랑어) 생산은 감소, 쿼터 확대 등으로 횃감용 참치(눈다랑어) 생산은 호조 전망
- 국제가격 상승 및 초밥 문화 확산으로 인한 시장 확대(중국, EU 등)로 참치 수출 호조세 지속
- 다만, 원화강세(엔화 및 달러화 약세)는 수출 확대 경계 요인으로 작용
- 국제기구 어획규제 강화, 원양어선 노후화, 인건비 상승 등 원양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수출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치어 어획(어류군집장치)에 대한 규제 강화로 '16년부터 3년간 주요 조업국 어획량 25% 감소 결정

□ **중국, 유럽 등 신시장에 '참치 회' 문화 확산**

- **앵커숍**을 중심으로 시식 등 소비자 체험행사 실시
- 언론기관 **팸투어** 등을 실시하여 안전성, 영양적 우수성 등을 홍보, 참치 소비에 우호적 여론 형성

□ **원활한 통관·유통환경 조성**

- EU 수출 시 요구되는 어획증명서 등 서류 발급 지연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출서류에 대한 **업계 사전교육** 등 실시
- 초저온 냉동창고를 포함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하고, 항공 물류망 확보를 위한 국내외 물류업체와의 협력 강화

□ **고급 참치 가공품 개발 지원**

- 참치 스테이크, 고급 참치캔, 참치죽 등 **참치 가공식품** 개발

나 김 (수출목표 : 565백만불, 10%↑)

1. 현 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생산량(만속)	12,830	13,265	12,438	12,379	15,414
수출물량(톤)	15,908	15,556	17,694	17,835	21,231
수출금액(백만불)	252	274	305	353	513
수출가격(\$/kg)	15.8	17.6	17.2	19.8	24.2

□ (생산) 김 생산량은 양식 면적 증가, 품종 개발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17년산 마른김 생산량은 **1억 4,095만속**(전년 대비 13.9%↑)

* '18년산 생산량도 '17년산 대비 약 10% 증가 예상

○ 물김 산지가격은 수출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상승 추세**

* 물김 산지가격(원/kg) : ('15년산) 914 → ('16년산) 1,128 → ('17년산) 1,425

□ (수출) '17년 김 수출은 **513백만불**(전체 수출의 22.0%)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45.4% 증가**하는 등 **수출 급증**

* 김 수출액(억불) : ('13) 2.5 → ('14) 2.7 → ('15) 3.0 → ('16) 3.5 → ('17) 5.1

○ (품목별) **조제김**(조미김, 스낵김 등) 수출이 전체 김 수출의 **58.5%** 차지

* 수출형태 : 조제김(조미김, 스낵김) 58.5%, 마른김 41.2%, 기타 0.2%

○ (국가별) **일본(22.4%), 중국(17.3%) 등 109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태국 등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

(단위 : 백만불)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252	274	305	353	513
① 일 본	59	59	51	78	115
② 중 국	33	45	66	68	89
③ 미 국	67	71	72	70	87

2. '18년도 김 수출전략

- ◇ (생산 전망) **해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전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 (호재) **해조류에 대한 세계적 수요 증가, 가격 상승 등**
- ◇ (경계) **주요 수입국의 생산 회복, 비관세장벽 강화 등**

< '18년도 김 수출전망 >

- 국내 김 생산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일본의 김 생산 회복에 따라 마른 김 수출은 위축
- 건강식품으로 해조류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조미김, 스낵김 등 소비재 품목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캐나다, 러시아, 호주 등 신흥국 시장 개척은 김 수출 확대 기반으로 작용 가능
- 한편 중국, 대만 등 주요국 위생기준 강화는 수출 확대의 경계 요인

□ **김 생산여건 개선**

○ 수출용 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식면허를 확대***하고, 마른김·조미김 **생산설비 확충 등 지원**

* 면허권 : ('17) 김 63,671ha, 해조류 97,930ha → ('18) 전년 대비 약 5% 확대 예정

○ 신종자(속성장, 고온내성, 내병성, 기능성 등) 개발·보급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 확대('24년까지 20개 종자 개발)

* 신종자 개발 목표 : ('13~'17) 7개 → ('20) 15개 → ('24) 20개

□ **생산과정의 위생관리 강화**

○ 위생적 김 생산을 위해 **세척수·오폐수 정수시설 보급을 지원**하고, 이물질 선별기·금속 탐지기·멸균기 등 **가공설비 지원***

* 정수시설 국비 지원 : ('18) 18억원, 가공설비 지원 : ('18) 16억원

○ 중금속에 대하여 사전 대응하고 **성분분석·용수검사 지원 확대**

□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홍보마케팅 강화**

○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우리식 명칭(Gim) 확산** 등 세계 김 시장의 주도권 공고화

다 오징어 [수출목표 : 90백만불, 15%↑]

1. 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생산량(천톤)	256	332	308	144	136
수출물량(천톤)	73	73	73	47	23
수출금액(백만불)	139	116	95	112	78
수출가격(\$/kg)	1.9	1.6	1.3	2.4	3.4

□ (생산) '14년 최고치인 332천 톤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17년은 전 세계적인 오징어 생산 감소로 최저치인 **136천 톤**(전년 대비 5.3%↓)

○ 오징어는 수온·해류 등 **해양환경에 민감한** 단년생 어종으로, 수온 변동, 불법어업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총 어획량 감소**

* 연근해 : ('14) 165,123톤 → ('15) 157,659톤 → ('16) 123,540톤 → ('17) 89,887톤

* 원양산 : ('14) 167,023톤 → ('15) 150,835톤 → ('16) 20,032톤 → ('17) 46,132톤

○ 원양산 오징어가 전체의 **33.9%**(46천톤), 연근해산은 **66.1%**(90천톤) 차지

□ (수출) '17년 오징어 수출은 전년 대비 **30.9%** 감소한 **78백만불** 기록

* 오징어 수출액(억불) : ('13) 1.4 → ('14) 1.2 → ('15) 1.0 → ('16) 1.1 → ('17) 0.8

○ 냉동(88.7%), 조미오징어(9.3%), 기타조제(1.5%) 형태로 56개국에 수출

(단위 : 백만불)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139	116	95	112	78
① 중국	71	39	38	30	22
② 일본	4	3	2	22	19
③ 미국	13	15	16	18	14

2. '18년도 오징어 수출전략

- ◇ [생산 전망] 원양산 오징어(포클랜드) 생산 회복 기대
- ◇ [호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 등
- ◇ [경계] 원화 강세 등 환율 변동

< '18년도 오징어 수출전망 >

- '16년 이후 연근해 및 원양산 오징어 생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금년 원양산(포클랜드) 생산이 회복되고 있어 어획량은 소폭 증가 전망
- 글로벌 수요가 꾸준한 품목으로, 생산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국제 가격 상승은 수출 확대의 호재 요인
- 원화강세(엔화 및 달러화 약세)는 수출 확대 경계 요인으로 작용

□ 시장다변화 추진 등

○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지원센터**를 유망시장으로 확대하고, EU 시장 등에 오징어 수출 확대를 위해 **'MSC'** 등 국제인증 취득 지원

○ 비용절감 및 조업특성 등을 고려한 **한국형 표준선형 어선 개발**

* 차세대 한국형 어선개발 : ('17) 28억원 → ('18) 42억원

□ 연근해 오징어 자원 관리

○ 오징어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지속적 지도·홍보 및 중국 어선 불법조업, 국내어선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등 단속 강화

* 포획금지기간(4~5월) 및 금지체장(외투장 12cm)의 점진적 강화·확대도 병행 추진

□ 중장기 오징어 자원량 회복 추진

○ 수산자원 회복 대상종 추가 지정 검토와 오징어 인공종자 생산 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회복** 추진

* 추진일정(수과원) : 친어 확보 → 인공 수정 → 부화 및 종자 사육(먹이생물 확보)

1. 현 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생산량(천톤)	303	287	288	331
수출물량(톤)	9,292	12,673	8,025	9,071
수출금액(백만불)	66	96	62	59
수출가격(\$/kg)	7.1	7.6	7.7	6.6

* 알굴 기준으로는 매년 약 3만톤 생산

- (생산) '17년 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한 331천톤을 기록
 - 주요 생산지인 **경남지역** 생산량이 전체의 **77.3%**(26만톤) 차지
- (수출) '17년 굴 수출은 미국, 일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화권 시장(홍콩, 중국) 수출 부진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한 59백만불 기록**
 - * 굴 수출액 : ('14) 66백만불 → ('15) 96백만불 → ('16) 62백만불 → ('17) 59백만불
 - (품목별) 냉동(56.6%), 가공(37.5%), 활·신선냉장(4.5%) 형태로 수출
 - (국가별) **일본(36.6%), 미국(31.4%), 홍콩(12.8%)** 등 41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신시장(뉴질랜드, 태국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

(단위 : 백만불)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66	96	62	59
① 일 본	31	56	20	22
② 미 국	14	18	16	19
③ 홍 콩	8	8	13	8

2. '17년도 굴 수출전략

- ◇ (생산 전망) 전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 (호재) 일본 생산 부진, 미국 굴 소비 확대, 수출 다각화(태국, 중국 수출 증가 등)
- ◇ (경계)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 안전성 확보

< '18년도 굴 수출전망 >

- 최대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굴 생산 부진과 미국의 굴 소비 확대로 굴 수출은 증가 전망
- 신흥 수출국(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으로의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국 다변화 기대
- 노로바이러스 발생 등 굴 위생 안전 관리는 수출 확대의 경계 요인

□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

- 부유물 제거, 어장 청소, 시설 철거 등 어장 **정화·정비**를 강화하고, 양식장 인근 마을 **하수처리장 확충** 및 **패류생산 지정해역 오염원 차단***

*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 공중화장실 정화조의 오염원이 패류 지정해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무방류순환시스템 설비 지원

- 패류정화시스템* 도입, 굴 박신장 및 가공·처리·저장시설 등에 현대화된 설비 확충으로 **위생적인 생산환경 조성**

* 생산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수준으로 정화하는 시스템

□ 수출판로 개척 확대

- 수출상담회, 국제박람회 등을 통해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 **굴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저가수출 등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 홍보·마케팅**을 통해 해외 인지도 제고
- 굴 수출선도조직을 통해 '양식-가공-수출' 간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규모화된 산업으로 육성

□ '원물' 위주에서 '고부가 가공제품' 위주 수출 전환

-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굴 스낵, 굴 스테이크, 굴 소스 등 해외 소비자의 입맛에 맞고 유통이 용이한 **고부가가치 굴 제품 개발 지원**

마 **넙 치** (수출목표 : 68백만불, 5% ↑)

1. 현 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생산량(천톤)	47	49	45	45
수출물량(천톤)	7	5	6	6
수출금액(백만불)	64	58	61	65
수출가격(\$/kg)	9.0	10.6	10.6	11.8

□ (생산) '13년 최저치인 41천톤 생산 이후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17년 생산은 전년 수준인 **45천톤**(전년 대비 0.1% ↑) 기록

○ 주요 생산지는 **제주도(56.1%), 전남도(31.5%)**이며, 우리나라 생산물량의 **약 10~15%**(5~7천톤)를 수출

□ (수출) '17년 넙치 수출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65백만불** 기록

* 넙치 수출액(백만불) : ('14) 64 → ('15) 58 → ('16) 61 → ('17) 65

○ (품목별) 활어(67.1%), 냉동(25.1%), 신선냉장(7.7%) 형태로 수출

○ (국가별) **일본(45.2%), 중국(25.6%), 미국(23.9%)** 등 21개국에 수출

- 對일, 對미 수출이 꾸준한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30.7% ↑)

(단위 : 백만불)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64	58	61	65
① 일 본	30	27	31	30
② 중 국	18	14	13	17
③ 미 국	12	14	15	16

2. '18년도 넙치 수출전략

- ◇ (생산 전망) 양성물량이 전년보다 적어 소폭 감소 전망
- ◇ (호재) 활어 외 신선냉장품, 냉동품 수출 호조
- ◇ (경계)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소비시장 침체

< '18년도 넙치 수출전망 >

- 활어 최대 수출 시장인 對일본의 소비시장 침체로 수출 위축이 우려되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있어 활어 수출은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최근 활어 이외 신선·냉장품, 냉동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넙치 전체 수출은 전년 수준을 소폭 상회할 전망

□ **활어 수출물류인프라 확충**

○ 활어의 신선도·위생 수준을 제고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수준의 위생시설을 충족하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부산 신항)

* 수조시설, 컨테이너 안전검사·연구동, 오페수처리 시설, 컨테이너 적치장 등

○ 국내외 **공동물류센터**(수조시설)를 **확충**하고, 활어의 대량운송을 위한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확대**

* 활어 컨테이너(누적) : ('15) 21대 → ('16) 41대 → ('17) 46대 → ('18°) 51대

□ **미국·유럽 등 유망시장 지속 개척**

○ 미주시장에서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fresh 넙치(피뻘넙치)의 수출확대를 위해 **고급 브랜드화 추진 및 마케팅 강화**

○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통한 미국·유럽 등 신규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넙치 양식업체에 대한 ASC 등 **국제인증 취득 지원**

□ **수출용 활넙치에 대한 안전성 강화**

○ 쿠도아충 발생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이력제·양식장 HACCP 확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바 전 북 (수출목표 : 57백만불, 10% ↑)

1.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생산량(톤)	7,591	9,140	10,225	12,461	16,134
수출물량(톤)	1,428	1,167	1,125	2,301	1,738
수출금액(백만불)	54	46	39	66	52
수출가격(\$/kg)	37.7	39.0	34.3	28.8	30.0

□ (생산) 해상가두리 시설량 증대 등에 힘입어 '17년 전북 생산량은 전년 대비 29.7% 상승한 **16,134톤** (전년 대비 3,673톤 ↑)

□ (수출) '17년 중국의 전북 생산량 회복의 영향으로 對중국 수출액이 평년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전년 대비 21.2% 감소한 **52백만불** 기록

* 對중국 전북 수출액 : ('15) 1천불 → ('16) 14,590천불 → ('17) 315천불(전년대비 97.8% ↓)

○ 활·신선냉장(91.6%), 냉동품(4.9%) 중심으로 18개국에 수출

(단위 : 백만불)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54	46	39	66	52
① 일 본	52	45	38	47	48
② 홍 콩	2	0	0	3	2
③ 싱가포르	0	0	0	0	1

2. '18년도 전북 수출전략

- ◇ [생산 전망] 해상가두리 시설량 지속 증가에 따라 증가 전망
- ◇ [호재] 일본의 꾸준한 수요, 최근 북미·아시아 등 新시장 개척 등
- ◇ [경계] 엔저, 중국 전북 생산 회복 등

□ **제품 개발 및 물류인프라 구축 등 수출경쟁력 제고**

○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형·저가 전북을 활용한 통조림, 전북장 등 가공제품의 개발 지원

○ 활전북의 신선도·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활어컨테이너 제작을 확대하고 산지·국내외 항만 등에 공동물류센터 확충

사 어 목 (수출목표 : 45백만불, 15% ↑)

1.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수출물량(톤)	6,223	7,244	8,415	8,533
수출금액(백만불)	29	34	38	39
수출가격(\$/kg)	4.7	4.7	4.5	4.5

□ (수출) 프리미엄 어묵화 전략 성공 이후, 어묵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17년 어묵 수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39백만불** 기록

* 어묵 수출액(백만불) : ('14) 29 → ('15) 34 → ('16) 38 → ('17) 39

○ (품목별) 어육소시지(55.6%), 생선묵(44.4%) 형태로 수출

○ (국가별) 중국(57.4%), 미국(19.0%), 일본(2.7%) 등 **46개국**에 수출

(단위 : 백만불)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29	34	38	39
① 중 국	13	21	23	22
② 미 국	7	7	7	7
③ 일 본	3	1	1	1

2. '18년도 어묵 수출전략

- ◇ [호재] 한·중 관계 개선, 동남아 신규시장 형성, 다양한 제품 및 포장기술 개발
- ◇ [경계] 저가 동남아산·중국산과의 경쟁 등

□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어육소시지(중국) 등 해외시장 취향·특성을 충족하는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어묵의 프리미엄화 추진

○ 명태, 실꼬리돔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묵 원료를, 제주 넙치 등 고급 어종으로 확대하여 프리미엄 어묵 상품 개발 지원

○ 어묵베이커리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고로케, 우동 등) 홍보 강화

□ (산업기반 확충) 부산 장림피혁단지의 공동어육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설비의 현대화 지원